

# 전국태권도선수권 내일 태권도원서

25일까지... 품새·겨루기로 나눠  
선수 총 2443명 참가 기량 겨루기

전북태권도협회(회장 이병하)에 따르면 제7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가 임원 및 선수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7일부터 25일까지 9일 간 무주 태권도원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대한태권도협회와 태권도진흥재단이 주최하고 전라북도태권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품새와 겨루기 종목으로 나눠 펼쳐진다. 겨루기 1,799명, 품새844명 총 2,443명의 선수들이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의 품새 경기는 남·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각 부별 19부조 나눠 진행되며, 겨루기 경기는 남·녀 중등부 11체급,

고등부 10체급, 일반부 8체급으로 열린다.

이병하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직접 태권도인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가 태권도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고 많은 태권도 유망주가 배출될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원배 대회는 2009년 태권도원의 성공적 조성을 기원하며 시작된 것으로, 태권도원 개관과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전국 대회로 승격되면서 선수층이 더욱 두터워졌다.

전북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전 방역 조치 및 계획 수립해 경기장 출입 통제하고 무관중 경기, 당일 출전 선수 및 지도자 출입만 가능도록 해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해당 경기는 17일부터 25일까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정은성 기자

## 전주시청 태권도 이선기, 2번째 국가대표 선발

전라북도태권도협회(회장 이병하)에 따르면 최근 함양 고운체육관에서 열린 2021년 국가대표선수선발 최종대회에서 이선기 선수(26, 전주시청)가 태권도 국가대표에 선발됐다고 전했다.

전북 출신인 이선기 선수는 삼례초등학교, 삼례중학교, 영성고등학교, 경희대학교를 거쳐, 고양인 전주시청 태권도팀에서 2번째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 선수는 이번 대회 남자 -87kg급에 출전해 결승에서 -87kg급 1순위였던 삼성에스원 변길영 선수를 20대 18로 제압하며 자신의 두 번째 태극마크 달았다.

한편 이번 최종대회에서 선발된 남녀 각 8체급·16체급 1~3위자들은 내년에 열리는 주요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병하 회장은 "공약 중 하나인 전라북도태권도 슈퍼스타 프로젝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대회 개최와 엘리트 태권도육성팀 지원 꿈



나무 육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1 전라북도태권도한미당대회가 12월 18~19일 2일 간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정은성 기자

##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 여수서 태권도 수련

120여명 대상 격주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승환)은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사회 적응교육 중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 120여명을 대상으로 15일부터 격주로 주 4회 태권도 교육을 추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의 태권도 교육은 지난 10월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이루어진 태권도 교육의 연장선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의 태권도 교육에 대해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이를 반영한 법무부 요청에 따라 추가 교육이 진행된다.

진천에서는 기본사기, 발차기 등 태권도 기본

교육을 진행했고 여수에서는 품새 등 태권도 승급을 위한 교육을 반영해 수련생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교육에 투입하는 지도서범과 태권도봉사단원에 대해서 PCR 검사를 진행하고 교육 시 소규모 분반 등을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및 확산 방지 노력에 동참할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승환 이사장은 "국기 태권도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국내 적응에 기여하고 있고 몸과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기 태권도 보급과 활성화 등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역할 수행에 태권도진흥재단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제38회 추계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우승한 익산고등학교 검도팀.

## 익산고 검도부, 전국대회서 우승

익산중·고등학교 검도팀이 전국대회에서 맹활약하며 전북 검도의 위상을 드높였다.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최근 충남 청양에서 열린 제38회 추계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익산중·고가 나란히 활약했다.

전국 29개팀이 참가한 고등부 단체전 대회에서 익산고는 인천고와 김해영운고, 성남고를 각각 물리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도 팽팽한 접전 끝에 경기 퇴계원과를 누르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익산중은 37개팀이 참가한 중등부 단체전 대회에서 준결승까지 승승장구하며 결승에 올랐지만 어렵게 동명중학교에 패하며 값진 준우승을 차지했다. /정은성 기자



## 군산대, 대학탁구대회 선전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39회 한국대학탁구연맹전

에서 군산대 탁구팀이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 등 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단체전에 나선 군산대는 8강전에서 위덕대는 3대0으로 누른 뒤 4강전에서 만난 인천대를 3대1로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어렵게 창원대에게 패하면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은 2개·동 1개 등 메달 총 3개 획득

개인경기에서도 군산대는 선

전했다.

허유진은 자신의 기량을 뽐내며 결승전까지 진출했지만 인천대 선수에게 1대3으로 패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남가은도 이 대회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 목에 걸었다.

군산대 박대수 탁구팀 감독은 "선수들의 기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내달 5일까지 '임실군수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함께 지난 13일 2021년 임실군수배 종목별 체육대회가 테니스, 탁구,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개최되었다.

임실군체육회와 각 종목별 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임실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내달 5일까지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10개 종목(테니스, 탁구, 축구, 게이트볼, 야구, 파크골프, 수영, 배드민턴, 배구, 골프)를 포함 대회전으로 약 1,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지난해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라 집합 인원이 제한되어 체육행사 대부분이 취소되거나 연기돼 체육단체와 동호인들의 아쉬움이 컸지만, 이번 단계적 일상 회의를 위한 일부 완화 방침으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단계적 일상 회의를 위해 일부 기준집합 인원 제한 등은 완화했지만 각종 체육행사가 재개되더라도 참여 인원에 따라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기존의 기본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참석자 명단 확보, 발열체크 등)은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빠른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백신 접종 70%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임실군민들 덕분에 이번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됐던 생활체육이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활기를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전종영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